

# 광주 도시 폭염 줄이기 머리 맞댄 민·관

37년간 평균 폭염일 10.4일  
여름 기온 100년새 1.9도 상승  
광주시·기상청 '시민포럼'  
시민 참여형 대응 방안 마련  
온도 1도 낮추기 적극 추진



22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도시폭염 대응 100인 시민포럼'에서 참가자들이 폭염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최근 광주지역의 한낮 기온이 30도 안팎을 기록하는 등 벌써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2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6월~8월 사이 광주에서 폭염현상이 나타난 날은 1994년이 41일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지난해엔 총 31일로 두 번째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1994년 광주지역 6~8월 최고기온이 32.1도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데 이어 2013년엔 31.2도, 2010년엔 30.7도, 2016년엔 30.6도를 각각 기록했다.  
일반적으로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일 때를 폭염이라고 한다. 국내에서는 일 최고기온 33℃ 이상인 날이 이를 이상 지속할 때는 폭염주의보, 35℃ 이상이 2일 이상 지속할 때는 폭염경보가 발령된다.  
기상청은 올해 폭염일 수가 지난해보다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최고기온도 예년과 같거나 다소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 광주시와 광주지방기상청은 22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시원한 도시, 미래세대 위한 안전한 광주'를 주제로 '도시 폭염대응 100인 시민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폭염에 대한 도시 차원의 해결 방안을 공유하고 시민들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또한, 광주시는 지난해부터 시민이 함께할 수 있는 시민참여형 정책인 '광주온도 1℃ 낮추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광주온도 1℃ 낮추기 프로젝트'는 극심한 폭염과 열대야 등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계획이다. 이 프로젝트의 비전은 '시민과 함께하는 시원한 녹색도시 광주만들기'이며 '광주는 Cool! 우리는 Call!'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4대 전략은 '녹색 더하기, 회색 줄이기, 마음 나누기, 희망 키우기'로 '녹지공간은 만들고, 오염물질과 에너지 소비는 줄이고, 초록문화 공동체식은 나누고, 에너지 발전과 효율성은 키우는 것'을 담고 있다.  
광주시는 또 '광주온도 1℃ 낮추기 프로젝트' 종합계획 수립과 함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범사업은 물론선 선도시 조성사업, 녹지조성 사업 등과 연계

해 사업의 실효성과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시범사업은 교육·홍보 효과 및 지자체 연계사업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이날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의 온열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며 "폭염 시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땀띠, 열 경련, 열사병, 열열증 등 더위로 인한 질병에 대한 대처방법을 미리 알아 두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23 해질 19:35 달뜨기 03:36 달지기 16:31

**반가운비**  
오늘 밤부터 내일(24일) 아침까지 5~20mm의 비가 내리겠다.

**지역별 날씨 (℃)**

|    |       |     |       |
|----|-------|-----|-------|
| 광주 | 16/27 | 보성  | 13/24 |
| 목포 | 17/25 | 순천  | 15/25 |
| 여수 | 16/23 | 영광  | 14/26 |
| 나주 | 13/27 | 진도  | 14/24 |
| 완도 | 16/24 | 전주  | 15/27 |
| 구례 | 11/26 | 군산  | 15/25 |
| 강진 | 14/25 | 남원  | 13/26 |
| 해남 | 12/26 | 홍산도 | 16/22 |
| 장성 | 13/25 |     |       |

**바다 날씨**

| 지역 | 오전 |         | 오후 |         |
|----|----|---------|----|---------|
|    | 풍향 | 파고(m)   | 풍향 | 파고(m)   |
| 서해 | 남동 | 0.5     | 남동 | 0.5     |
| 남해 | 남동 | 0.5~1.5 | 남동 | 0.5~1.5 |
| 남해 | 남동 | 0.5~1.5 | 남동 | 0.5~1.5 |
| 남해 | 남동 | 1.0~2.0 | 남동 | 1.0~2.0 |
| 남해 | 남동 | 1.0~2.0 | 남동 | 1.0~2.0 |

**생활지수**

|      |    |
|------|----|
| 관심   | ☔  |
| 식중독  | 🦠  |
| 보통   | ☀️ |
| 자외선  | ☀️ |
| 보통   | 🌀  |
| 피부질환 | 🦠  |

**주간 날씨**

| 날짜    | 날씨 | 기온    |
|-------|----|-------|
| 16/23 | ☁️ | 16/23 |
| 15/29 | ☀️ | 15/29 |
| 14/30 | ☀️ | 14/30 |
| 15/32 | ☀️ | 15/32 |
| 16/32 | ☀️ | 16/32 |
| 16/31 | ☀️ | 16/31 |
| 16/30 | ☀️ | 16/30 |

## 세월호 3층 구명조끼 입은 유해 수습

망골수도 침몰해역 음파탐지기 첫 투입  
김치단 등의 전문가의 육안감시 결과 사립배로 추정됐다.  
한편, 세월호 고장석 교사의 유해가 발견된 진도군 망골수도 침몰해역의 수색에 음파탐지기 첫 투입됐다. 세월호 현장수습본부는 세월호 침몰해역에서 진행 중인 펜스 테두리 주변 수중수색 작업을 이날 오전 마무리했으며, 오후부터는 수중 음파탐지기(소나)를 투입해 수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세월호에서 수습된 유류품은 2323점이다.  
이날 발견된 유해는 국방부 유해발굴

# 세방산업 발암물질 배출, 1년만에 99.5% 줄었다

TCE 사용량 1일 600kg→90kg로 저감  
주변 16개 모든 지점 대기 노출농도 감소

1급 발암물질인 트리클로로에틸렌(TCE) 배출로 논란을 빚은 광주 세방산업이 설비개선 등으로 인해 배출량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세방산업 TCE 배출 검증위원회는 22일 최종 검증보고회를 하고 세방산업 굴뚝에서 배출되는 TCE농도는 오염실태 개선 전 73ppm에서 0.39ppm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이는 개선 전과 비교해 무려 99.5%가 줄어든 수치다. 평균 TCE 사용량이 1일 600kg에서 90kg으로 격감한 것이 배출량 저감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검증

위는 설명했다.  
공장내 설비 등의 오염도는 개선 전 평균 1.24ppm에서 0.45ppm으로 63.7% 줄었다. 세방산업 주변지역 16개 지점 대기 중 TCE 노출 농도는 공장에서 40m 떨어진 광산소방서가 평균 14.13ppb에서 11.69ppb로 떨어지는 등 모든 지점이 감소했다. 국내 대기 중 TCE 관리기준은 없으며 일본은 37.24ppb다.  
검증위는 "수원, 운남, 하남지구 등 나머지 주변지역은 0.5ppb(0.0005 ppm) 이하로 측정되는 등 주민들 건강에 우려를

줄 수준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관찰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세방산업 직원과 광산소방서 근무자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 추적관리 계획 수립 등을 권고했다.  
검증위는 2004~2013년까지 10년간 신장암 발생빈도, 10만명당 조발생률 등을 검증한 결과 광주와 광산구는 전국 평균과 비교해 모두 낮았다고 설명했다.  
검증위는 "시설 개선 후 세방산업 굴뚝을 통한 TCE 배출은 대부분 차단됐지만 제조시설 중 격리판 오일 추출, 건조과정은 공장 협소 등으로 완전 밀폐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TCE양을 더 줄이기 위해서는 신규 시설의 이전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세방산업은 2008년부터 6년간 전국에서 가장 많은 TCE를 배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으며 광주시는 지난해 6월, 전문가 등으로 검증위를 구성, 배출량, 근로자 건강, 작업환경, 주변지역 대기환경 등을 조사했다.  
TCE는 중추신경계, 간, 신장 손상을 유발하는 독성 발암물질이다. 세방산업은 배터리 분리막 제작에 TCE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현배기자 cki@

## 여수 돌산 해역서 4.95m 밍크고래 포획

바다의 로또로 불리는 밍크고래가 여수 돌산 해역에서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다. 지난 3월에 이어 또다시 다른 어종과 함께 걸리는 흔적으로 잡혔다.  
22일 여수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8시30분께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앞 100m 해상에서 밍크고래 한 마리가 정지망 어장 안의 그물에 죽은 채 걸려있는 것을 조업 중이던 24급 K호(여수선적) 선장 김모(36)씨가 발견했다.  
길이 4.95m, 둘레 2.34m, 가랑의 밍크고래는 여수해경의 확인 결과 외형상 작



살류 등 불법 포획 흔적이 없어 처음 발견한 김씨에게 고래유통증명서를 발급하고 인계했다. K호 선장 김씨는 이 고래를 울산수협에 4300만원에 위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 24/35PY 분양

소촌동 모아드림 1,2차 | 온세계 아이조움

# 분양 전환 계약금 500만원

대출 70% OK!

이자만 납부 OK!

청약 통장 NO!

즉시 입주 OK!

24PY

- 방 3
- 화장실 2
- 주방
- 거실

과감 심박

35PY

- 방 3
- 화장실 2
- 주방
- 거실

분양문의 (062) 610-9232